지역 소식통

김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5% 세액공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5%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에 신청하면 3.75%, 6월 2.5%, 9월 1.2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도록 31일까지 꼭 신고,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설 연휴 대비 범시민 환경 정화 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김제를 찾는 귀성객 및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긴 설날 연휴로 많은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는 사전에 설날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거리 사각지대 및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시가지,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깨끗한 길거리 만들기에 주력했다.

또한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 및 배출 가능 요일도 함께 홍보해 시민들이 혼란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10만 완주군, 탄탄한 재정 '주목'

대규모 국세 감소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원 지급

완주군이 대규모 국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완주군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해 투입되는 규모도 300억 원 규모로 상당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2024년 말 적립액은 461억 원에 달한다. 민선8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테크노밸리2산단 분양률이 급상승해 완판을 앞두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완주군 세입은 기업유치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탄탄한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근거 조례 및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도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정부승인이 불투명하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경기침체 적시해소라는 민생안정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군은 2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첫날과 이튿날인 22일부터 23일은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인 25일과 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1개소(삼례읍, 삼봉민원센터, 봉동읍, 둔산민원센터,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혁신센터,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금을 배부한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본격 운영

관내 카페 · 음식점 24곳 현판식 개최…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최선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지난 20일 완주군청 복합문화지구 내 누에살롱에서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현판식'을 열었다.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 및 양육자의 이용이 높은 카페·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상점을 모집했으며, 올해 초 관내 음식점 24곳(카페 12곳, 음식점 12곳)을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으로 최종 선정했다.

아동친화상점 사업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기된 대표적 아동권리 침해사례인 '노키즈존' 문제를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아동민원으로 접수해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검토한 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으로 선정된 상점에는 아이러브존 현판이 부착되고, 완주군에서는 30만 원 상당의 아동 편의용품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상점에서는 아동전용메뉴를 구비하고 아동친화주간(5월, 11월)을 지정해 아동동반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과 양육자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상점 사업에 동참해 준 사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완주군은 지역사회의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21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민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김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구현, 다문화 협력·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 4대 추진전략 아래 10개 추진 과제와 25개의 세부 과제로 계획했다.

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희옥 부시장을 포함해 지역대학 교수 및 전문가, 단체 대표 등 심의위원이 참석,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실적을 점검하고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개선해야 할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심의위원들은 2차년도 시행결과 중 법정 감염병 발생건 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공공심야약국 인지도 및 만족도, 출산장려금 지원자수, 정신증 선별검사 등 성과가 우수한 지표들을 칭찬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흡연율과 비만율 같은 부족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김제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기 수립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혼부부 및 청 · 장년층 근로자 주거지원

김희옥 부시장,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 방문

김제시(시장 정성주) 김희옥 부시장이 지난 20일 백산면 부거리 1595-3에 위치한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은 시와 LH가 총공사비 272억원(김제시 41억원, LH 231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및 청·장년층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건설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돼 2023년 3월 LH가 공사를 착공하고 이달 현재 준공 단계에 있으며 오는 4월 사용승인을 거친 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아파트는 김제지평선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6,469.00㎡이고 2개 동, 120세대(21㎡형 44세대, 36㎡형 56세대, 51㎡형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대 시설로 북카페, 도시락카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로자휴게소, 경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신혼부부 및 청·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중에 있다.

이날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희옥 부시장은 건설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김제지평선 행복주택 아파트가 신혼부부 및 청·장년층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편익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김제시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

공공보건의료기관 14곳 · 문 여는 병 · 의원 61곳 · 약국 41곳 운영

완주군이 설 연휴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설 연휴 응급진료 대책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4개소, 문 여는 병·의원 61개소, 약국 41개소를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보건소 상황실(063-290-3015)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군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등을 점검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신고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은 129,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군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신세계병원, 김제 금산면에 생활용품 기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1일,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용품 58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병원은 매년 설 명절, 추석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이나 쌀 등 필요한 물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번 또한 생활필수품(고급 화장지세트) 58개를 기탁했다.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금산면의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가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따뜻하고 희망찬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매년 명절마다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김한주 병원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탁받은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